부처님 말씀대로 수행 정진하는 도량 · 부처님 말씀대로 신행 실천하는 도량

# 보광사보

열정과 욕망,
사랑과 갈망에서
슬픔도 두려움도 생겨나는 것.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법구경-

발행인 · 편집인: 주지 환암 심진 / 발행일: 불기 2559(2015)년 8월 28일 /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 경기도 파주시 보광로 474번길 87
전화: (031)948-7700 FAX: 031-948-7702 / http://www.bokwangsa.net / 제작: 성신문화인쇄(02-468-0127~30)

주지스님 백중 법어

## 목련존자의 효행 정신, 사회적 효 실천으로...

불교에서는 백중(우란분절)의 유래를 『목련경』, 『우란분경』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목련존자의 효행을 본받아 칠월 보름이 되면 금생의 선망 부모와 전생의 부모형제를 위한 천도재(우란분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후에 지옥에서 고통 받는 모습을 본 목련존자는 부처님으로부터 어머니를 천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음력 7월15일 하안거 해제일을 맞춰 자자를 끝낸 스님들에게 오미(五味), 백과(百果), 의복 등 공양 올린 공덕으로 목련존자의 모친과 지옥에서 고통 받던 모든 중생이 지옥고를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제일에는 선을 닦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스로 범한 허물이나 깨달은 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점검 받는 날로서, 수행의 에너지가 참으로 대단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날 과일과 음식을 스님들께 공양하여 정성을 들이면 부모는 물론 친족들도 삼악도를 면하고 천상에 태어나고 병고가 없이 장수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란분재를 올리는 불자들에게 부모가 길러주고 사랑해 준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우란분재를 준비하고 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효행이란, 다만 살아 계신 부모님께 잘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선망(先亡) 조상(祖上)과 일체중생 그리고 법계의 모든 유주무주(有住無住) 고혼(孤魂)을 천도하여 바른 길로 이끄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망경(梵網經)에서는 "끝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는 동안 육도 중생이 나의 부모와 형제 아님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부딪치고 싸우는 사람들, 하다못해 짐승들까지 부모, 자식, 형제지간이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일체 중생이 그대로 나의 부모요 형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효심(孝心)이 바로 불심(佛心)'이란 말은 부처님의 효심은 내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베푸는 보살심(菩薩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중은 대자대비의 효심을 밝히는 날입니다. 작게는 부모님과 선망 조상님들의 극락왕생과 해탈을 기원하고, 크게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승보살도의 핵심인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대서원을 실천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은 누구나 거역할 수 없기에, 효 근본도량 보광사 불자들은 목련존자의 효행 정신을 본받아 부모에 대한 효를 넘어 중생구제의 정신에 입각해 사회적 효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백중에 우리 모두는 인연의 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과거와 현재에 걸쳐 인연 맺었던 모든 분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로 자리매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기 2559년 우란분절에
대한불교조계종 고령산 보광사 주지 환암 심진 합장

보광사 대중스님들, 좌 진성스님(포교), 지공스님(부전), 남수스님(부전), 귀일스님, 혜만스님(부주지), 심진스님(주지), 향산스님(노전), 혜복스님(총무), 향문스님

# 백중(우란분절)의 유래와 그 의미

부처님 오신날, 출가재일, 열반재일, 성도재일과 더불어 불가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매년 음력 7월15일에 선망부모와 인연 영가를 위해 천도재를 지내는 날이 바로 백중입니다. 이 백중을 불교에서는 우란분절(盂蘭盆節)이라고 부릅니다.

## 1. 우란분절의 유래

우란분절에 대한 유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십대제자 가운데 두 번째 제자였던 신통력이 뛰어난 목련존자의 효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우란분절에 행하는 불교 의식을 우란분재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우란분경(盂蘭盆經)』(『대정장(大正藏)』16권, p.779)과 『목련경(盂蘭盆經)』(『대정장(大正藏)』16권, p.779)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교적 효도를 강조한 불교 경전인 『우란분경(盂蘭盆經)』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에 의하면,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신통제일이었던 목련(目連) 존자(Maudgalyāyana)가 비록 육신통(六神通)을 얻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도 아귀도에 빠진 그의 어머니를 구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목련존자에게, 안거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에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면 그 공덕으로 선망부모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 날 스님들에게 공양한 결과 그의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스님들의 안거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에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면, 그 공덕으로 현재의 부모는 물론 과거 7대의 부모까지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2. 우란분절의 의미

우란분절은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ullambana)'에서 유래한 말로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란분절은 거꾸로 매달려 있듯이 힘든 상태에 있는 지옥 중생들의 천도를 위해 재공양(齋供養)을 올리는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효를 강조하는 것은 불교사상의 근간인 자비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실천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효의 실천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효의 실천을 불교적으로 행하는 우란분절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선망부모와 유주무주의 고혼을 위하여 공양을 올리는 재는 육도의 모든 중생이 부모였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육도의 중생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대자대비의 지비행을 실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또한 우란분절에는 사부대중이 함께 음식을 나눠먹음으로써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란분재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선망부모를 천도하고자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망부모와 유주무주의 고혼들까지 생각하여 재를 올리고 공양을 베푸는 사실이 이미 두터운 업장을 벗어버리고 좋은 인연을 지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망부모와 유주무주의 고혼들까지 소중히 생각하여 재를 올리고 공양을 베푸는 것은 우주법계의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란분절은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보살의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공덕을 짓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오늘 선망부모에게 재를 올린 이 정성만큼 나와 관계된 모든 인연들에게 정성을 다하시고, 우란분절을 지낸 이 공덕으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우란분절 감로탱화

# 심진 주지스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보광사

보광사에 소임을 맡게 된 심진 주지스님은 새로 함께 시작하는 마음으로 보광사 불자님들과 지역 기관장님들을 모시는 점심 공양청을 하셨습니다.

이 날(2015년 8월 14일)은 초하루 법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다음 날이 광복절이라는 국가 공휴일이기도 하여 많은 보광사 불자님들과 인근 지역주민들, 고양시 및 파주시 기관장님들이 오셔서 주지스님의 공양청이 원활하고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 우란분절(백중) 입재

불교의 "재(齋)와 제사(祭祀)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들은 재(齋)를 제사(祭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재가 불자들도 '49재', '천도재' 등을 망자를 보내는 불교의식 정도로만 알고 있기도 합니다. 제(祭)가 아니라 재(齋)입니다. 재(齋)를 하는 목적은 망자에게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어 탐욕과 집착을 버려서 좀 더 나은 내세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고령산 보광사의 우란분절 입재(7월 11일 10시) 법회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많은 불자들과 보광사 주지 심진스님을 비롯하여 여러 스님께서 참석하셔서 여법하게 봉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스님께서는 지난 초하룻날 부채에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등의 글을 붓으로 손수 쓰셔서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라는 말씀과 함께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 군포교지원단 활동

대한불교 조계종 보광사는 불기 2552년(2009년) 3월 22일 당시 주지였던 초격스님과 지도법사 탄웅스님을 중심으로 군포교지원단이 조직되었습니다. 현재 군포교지원단은 보광사 포교국장이신 진성스님을 중심으로 포교사 각명거사님, 단장인 종신거사님과 진불화보살님, 그리고 행법거사님, 석현거사님, 선경화보살님 등 약30여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불교 교양 대학을 졸업한 불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특공부대에, 둘째 주는 특공부대와 3653부대, 셋째 주와 넷째 주는 기갑부대를 방문하여 포교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장병들에게 염주를 나눠주는 행사와 부대 내의 법당에는 연등 및 꽃 공양을 해왔습니다.
년 누계 약 4,000명의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정기적으로 납부하시는 불자님, 부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시하시는 불자님, 보광사 거사회원들의 매년 정기 후원금, 또한 익명으로 후원금 제공해주시는 분들의 보시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사중에서도 군포교를 위해 공양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포교 후원에 뜻이 있는 많은 신도님들의 수희동참 바랍니다.

## 철야정진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정진기도

지난 2015년 7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신묘장구대다라니 저녁 정진기도 입재가 50여 불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 심진스님 집전으로 3시간 동안 여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본사 봉선사에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저녁 다라니 기도를 해오셨는데 33회

까지 이어오셨으며 보광사 주지 소임을 맡으시고 이어서 다라니기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광사 저녁 정진기도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달까지 29회차 진행중이었고 이번이 30회차인데 심진스님 다라니 기도와 접목하여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휴식시간 10분이었고 다라니 독송과 절수행을 병행하였으며 한 치의 틈도 주지 않으시고 기도 삼매경에 취하게 하시어 기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보광사 저녁정진기도는 이렇게 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 후 스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 정진할 때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며 절대로 혼자는 살 수 없음이니 무엇이든지 덕분에 산다고 생각하면 삶이 한층 더 행복하시리라고 확신하며, 기도 동참하신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덕담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주지스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도에 목말라했던 보광사 불자님들 가슴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참 좋은 인연으로 회향되기를 두 손 모읍니다.

## 고양동 무료급식 봉사활동

고양동 '시민자원봉사연합회'는 2008년 7월에 발대식을 하여 처음 시작은 고양동 주민자치센타 옆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무료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봉사자들은 보광사 불교교양대 28기 보살님들과 고양동 지역 보광사 신도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광사에서는 3개월에 쌀 60kg씩 후원과 봉사 때마다 사중에서 과일 지원과 보광사 신도님들의 개인적인 후원으로 떡을 150명분을 후원해 왔습니다.
2011년에는 보광사 신도님들의 도움으로 고양빌딩 3층에 보금자리를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무료급식 봉사를 보광사 봉사자들이 맡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광사 불교 교양대 40기 혜월심, 자은명, 무주월, 대자성, 소현향, 법진 화보살님 등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정원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한 법회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정원요양원의 30여 분 어르신들을 위한 법회를 보광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몇 분은 거동이 많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의지해서 오시기도 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광사에서는 5년 동안 정원요양원 목욕봉사를 한 달에 한 번 해오다가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내 부모님의 등을 밀어드린다 생각하시고,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봉사에 뜻이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의 법회를 위한 봉사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보광사소식

### 고령산 보광사 산신대재 7일기도

- **입재** : 11월 2일 월요일 (음력 9월 21일) 오전 10시 산신각
- **회향** : 11월 8일 일요일 (음력 9월 27일) 오전 10시 산신각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 수능합격발원 100일기도

- **입재** : 8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대웅전
- **회향** :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웅전

### 불교 기초교리강좌 개강

- **개강** : 수요반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설법전
  일요반 9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 설법전

### 추석 합동차례 봉행

을미년 조상님들을 위한 추석 합동차례를 봉행합니다.

- **일시** : 9월 27일 일요일 (음력 8월 15일) 오전 10시
- **장소** : 설법전

### 보광사 정기법회 안내

- **일요일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설법전
- **신중3일기도 입재** :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설법전
- **인등축원기도** : 매월 음력 보름 오전 10시 대웅전
- **지장재일영가천도기도** :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전
- **관음재일소원성취기도**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원통전(관음전)
- **철야정진기도**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8시~11시 설법전

**동참문의 : 031-948-7700~1** (계좌번호 : 농협 215066-55-005378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 보광사 거사회

보광사 거사회는 회장(혜인)을 중심으로 약 6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 교양대학 졸업생 등을 거사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는 거사회 정기법회가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 사찰안내, 공양간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 가을에는 성지순례를 통해 불교에 대한 신심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보광사 풍물단 활동

보광사 풍물단은 2013년 2월초에 거사림회 회장이던 석현거사와 풍물단 단장을 맡고 있는 무심거사 외 20여명의 단원들로 창단되어 매주 2회씩 연습을 통해 실력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 정월대보름, 그리고 이번 백중과 같은 큰 사중행사 때마다 보광사 풍물단의 공연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심단장님, 행법, 보익, 환본, 본각, 청수거사님, 혜우심, 선정화, 수련심, 본자연, 선덕행보살님 등 거사님 및 보살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광사 풍물단은 전라북도 위도 칠산어장 조난 어업자 위령제 행사에 재능기부 공연을 매년 5월에 참가하며 치도어촌계와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와 불법의 전령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불교 기초교리강좌 안내

불교 기초교리강좌는 불교를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불교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불교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사찰에 가야 하는지, 사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법회에 참석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자로서 꼭 알아야 하고 갖춰야 할 것 등을 배우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불교가 어렵다고 느끼셨던 많은 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의 : 보광사 종무소(031-948-7700)**

www.Bexel.co.kr
대한민국 건전지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전지 - 벡셀
Bexel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벡셀
전화 : 010-8893-3067
행안 합장

Cheese Bosco
CHEESE RICE & COOK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치즈보스코
전화 : 010-8893-3067
행안 합장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종로떡집
전화 : 031-947-0064
삼광 강성모 합장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